

〈종이의 집〉에 나타난 탈 중심적 사고*

임주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임주인(2023), 〈종이의 집〉에 나타난 탈 중심적 사고,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4(1), 27-47.

초록 〈종이의 집〉에서는 2008년 부동산 거품 붕괴와 거대 부실채권으로 인해 파산지경에 이른 스페인의 금융정책과 경기부양책에 대한 비판이 전 편에 걸쳐서 이어진다. 강도들이 중앙은행과 조폐국을 습격장소로 지목한 것은 스페인 금융위기를 야기시킨 정부와 금융 당국자들에 대한 스페인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등장인물 간의 갈등과 충돌 등 내부의 크고 작은 저항의 일면을 들뢰즈의 탈영토화의 개념으로 해석해보고자 한다. 들뢰즈는 국가 장치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주변부에 위치한 소수자들을 유목적 주체로 보고, 개인의 주체 해체와 본질적인 것의 소멸 및 주변부 타자들의 부상을 중심으로 공식 문화가 지닌 획일적인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16~17세기의 피카레스크 소설을 비롯해서 오늘날의 탐정소설 노벨라 네그라에 이르기까지 반 영웅주의 소설의 계보를 잇고 있는 소수계층의 반 영웅적 인물을 중심 캐릭터로 등장시킨 〈종이의 집〉에서 논리에 지배당하지 않고 미학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사유의 실제작용을 표현하고자 기존 미술 세계와 당시의 사회 체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 섰던 달리의 초현실주의적 시각이 탈영토화 개념과 맞닿아있음을 확인해본다.

핵심어 종이의 집, 질 들뢰즈, 펠릭스 카타리, 노마디즘, 노벨라 네그라, 탈영토화, 리즘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7045153).

I. 들어가면서

<종이의 집>은 넷플릭스(Netflix)에서 2017년에서 2021년 4년에 걸쳐 방영된 스페인 드라마로 스페인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렸던 작품 중 하나다. 스페인의 조폐국과 중앙은행을 습격하는 내용의 범죄 스릴러 드라마로 한국에서도 이 드라마를 리메이크해서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다. 이 드라마는 범죄내용을 다루는 드라마로 교수를 포함하여 9명의 “더 이상 잃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범죄 여성, 이민자, 마약거래상과 동성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비주류층 소외계층이다. 비주류, 소외계층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은 16~17세기의 피카레스크 소설을 시작으로 20세기 노벨라 네그라에 이르기까지 반 영웅주의 문학의 한 축을 형성했다. 소수계층의 반 영웅적 인물이 중심 캐릭터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종이의 집> 역시 스페인 고전문학 전통과 맥이 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

<종이의 집>의 역대급 시청률은 범죄 집단과 같은 소외계층이 인권을 인정받는 다원화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드라마의 시즌5, 10화 마지막 화면에서 ‘저항(resistencia)’이라는 자막이 뜬다. 결국 연출자가 시청자들에게 드라마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저항’에의 의지였던 것이다. 이 드라마의 주제를 암시하는 또 하나의 장치는 살바도르 달리의 가면이다. 살바도르 달리는 초현실주의 화가로 앙드레 브레통을 비롯하여 당시 대부분의 초현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와 파시즘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논리에 지배당하지 않고 미학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사유의 실제작용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기존 미술 세계와 당시의 사회 체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 섰던 초현실주의적 성향을 고려해볼 때, <종이의 집>에서 달리의 가면은 저항의 아이콘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강도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저항의 대상은 누구인가.

범죄자들에게 있어서는 경찰과 중앙정보부, 그리고 특수부대를 비롯한 군인들이었고, 좀 더 광범위한 시각에서 볼 때 스페인 정부당국자들의 국가 금융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부동산 거품 붕괴와 거대 부실채

권으로 인해 파산지경에 이른 스페인의 금융정책과 경기부양책에 대한 비판이 드라마 전 편에 걸쳐서 이어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강도들이 중앙은행과 조폐국을 습격장소로 지목한 것은 스페인 금융위기를 야기시킨 정부와 금융당국자들에 대한 스페인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등장인물 간의 갈등과 충돌도 내부의 크고 작은 저항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저항과 그로 인한 갈등을 들뢰즈의 탈영토화의 개념으로 해석해보고자 한다. 들뢰즈는 국가 장치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주변부에 위치한 소수자들을 유목적 주체로 보고, 개인의 주체 해체와 본질적인 것의 소멸 및 주변부 타자들의 부상을 중심으로 공식 문화가 지닌 획일적인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서구의 자본주의 사회나 자민족 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사회의 소외계층과 이방인, 그리고 제3세계 문화에 대해 열린 입장을 취하면서 타협과 공존에 근간을 둔 역동적인 창조의 힘을 중요시 여겼다. 다시 말해서, 경직되고 패쇄적인 사회구조와 전통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회복하고, 배타적이고 지배적이고 초월적인 주체성에서 탈피하여 상호적이고 변별적이며 다중적인 탈영토화를 추구했다. 이러한 탈 중심주의 시각에서 볼 때, <종이의 집>인기의 원인은 강도들 간의 수평적이고 역동적인 관계 생성과 화해를 강조하는 인간주의가 저변에 깔려있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이번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로는 <종이의 집>에 대해서 여성등장인물들의 성차별주의에 대한 저항과 페미니즘적 사고와 관련된 연구가 있고, ‘교수’라는 가명으로 불리는 주인공과 동료 강도들 사이에서 심리적 관계를 탐구한 정신분석학적 연구가 있다. 필자는 들뢰즈의 노마디즘 및 탈영토화와 관련된 연구와 스페인 황금세기 여류작가의 소설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스트적 시각에 대한 연구 및 중세 이후, 스페인 전통 사회의 소수자 집단을 형성한 모리스꼬(무어인)와 반 유대 정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20세기 재등장한 신민족주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피력한 바 있다. 이들 연구의 공통된 결론은 레콩끼스파 이후,

소수계층을 차지하던 마녀나 집시를 포함한 여성, 모리스꼬와 유대인들에게 가해진, 왜곡된 집단무의식의 폐해가 21세기 비유럽 출신의 불법이민자들에게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마찬가지로 여성차별주의는 21세기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여성들까지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데이트 폭력의 희생자가 되게 하였다. 시기와 장소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소수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와 편견은 역동적이고 개방된 다문화주의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게 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필자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남녀 성차별주의와 불법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집단무의식 내지는 신식민주의적 사고와 국가권력기관의 비인간적인 폭력성에 대해 들뢰즈의 탈 중심 이론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II. ‘소수자 되기’로 보는 〈종이의 집〉

들뢰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 탈영토화, 탈코드화 된 욕망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시대이기에 합리적인 단일한 논리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소수자의 삶의 방식과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들뢰즈는 나무로 은유되는 서구 철학을 비판하기 위해 새로 고안한 ‘리즘적 사고’를 통해 고정적인 실체로 사물을 파악하려는 서구적 사고에 대항한다. 리즘적 사고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과 접촉하고 새로운 가치를 자신의 삶에 접합하는 것으로 기존의 관습화된 사회적 질서를 모방하고 수용하며 자신의 경계를 유지하려는 영토성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질적인 선들이 상호 교차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수많은 선들을 만들면서 뻗어가는 스텝 식물을 뜻하는 리즘의 이미지를 통해, 오늘날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인 타문화에 대한 비타협적이고 냉소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개방성 속에서 문화적인 공존과 이해에 기초한 역동성의 가치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종이의 집〉에서 주된 무대가 되고 있는 조폐국과 중앙은행은 강도들이 경찰과 대치하며 인질극을 벌이는 패쇄

된 공간이다. 그러나 ‘더 잃을 게 없는’ 강도들에게는 자유를 보장해주고 미래를 열어주는 창조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이를 갖게 해 주는 것이 들뢰즈와 카타리의 노마디즘 이론이다.

노마디즘이라는 용어는 “유목민의 정체성”(Deleuze 1973, 732)을 뜻하는 말로서 인간들에게 열린 공간, 즉 경계선도 테두리도 없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분배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이 곳은 바다가 한 순간에 쓸어가는 모래성같이, 반복되는 이미지로 진보를 거부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본성을 희구하는 열정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유목민은 징기스칸의 예에서 보듯이 도시와 경작지를 초원으로 탈영토화 시켰으며 권력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영토성을 창안해낸다. 그러나 기존의 통념들을 변형시키고 새로운 계열을 생성하며 상징적인 질서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며 영원한 소수자로서 살아남기에, 기존의 영토를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국가의 측면에서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국가 장치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주변부, 소수자들이 존재하는데 들뢰즈는 이들을 유목적 주체들로 보았다(김승숙 2009, 23).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 조폐국과 중앙은행은 경찰이나 정보국 요원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강도들만의 공간이기에 그들이 주변부의 유목적 주체가 할 수 있다. 소수자/주변인들은 탈주를 통해 서구의 합리적 이성이 부여하는 선/악의 기준과 획일적인 이데올로기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림 1〉 〈종이의 집〉의 달리가면



〈그림 2〉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소수자로서의 강도 집단의 구성원들을 보면, 교수는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편집광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베를린은 아

들에게 어린 부인을 빼앗긴 후에 트라우마로 여성혐오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팔레르모와 헬싱키는 동성애자이고, 모스크바와 그의 아들 덴버는 마약중독자인 어머니로 인해 가산을 탕진하고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을 드나들었고, 마약거래를 하며 홀로 아들을 키우던 나이로비는 경찰에게 잡혀서 아들도 빼앗기고 감옥으로 보내진다.

리우는 우연히 범죄 해킹 집단에 이용당해 어린 나이에 감옥살이로 자신의 미래를 빼앗길 위협에 처한다. 그리고, 도쿄라는 여인은 어린 나이에 남자친구랑 도둑질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어 경찰에게 쫓겨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였고 그런 그녀 때문에 어머니도 병으로 죽게 된다. 라젤 무리요, 일명 리스본은 인질극의 협상가로 능력 있는 경찰이자 주류층에 속하는 인물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습적인 남편의 구타에 시달리는 연약한 여인이었고 자녀의 양육권마저 남편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늘 불안해하는 주변인이었다. 교수가 그들을 소집하기 전, 이들은 모두 주변인으로 가난마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서 꿈과 비전을 도둑맞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권력에 부딪히는 것이 현대인의 운명이라는 푸코의 질문에 들뢰즈는 “저 아래에는 통제를 벗어나는 생성들, 곳곳이 소생해 마지않는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 이곳저곳에서 새어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답한다(들뢰즈 1996, 167). 교수의 지휘에 따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국가 보안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변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시즌5의 10화에 가서 교수는 강도들 모두를 잃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타마요 정보국장과의 대화와 협상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막대한 금과 미래를 보장받은 채,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탈주를 한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종이의 집>에 나타나고 있는 주변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불법이민자 집단, 동성애자 집단, 반파시스트 집단으로 나누어서 들뢰즈의 소수자-되기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들뢰즈의 소수자-되기 이론에서 ‘되기’란 차이를 가로지르는 실천적 활동이다. 흑인과 백인의 차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서 볼 수 있듯 차이가 차이로 남아 그 차이들의 관계

가 굳어질 때, 이 차이를 뚫는 저항과 창조의 행위가 ‘되기’이다. 들뢰즈는 “되기 이론은 동일성의 고착, 그리고 그렇게 고착된 동일성들 사이에 성립하는 차이의 윤리를 극복하기 위한 사유”라고 하였다(Deleuze & Guattari 1980, 485).

‘흑인 되기’ ‘여성되기’ ‘아이 되기’ ‘장애인 되기’가 되기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하루 감옥 체험’이나 ‘시각장애인 체험’은 이 되기의 극히 작은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 들뢰즈는 ‘되기(becoming)’가 진정한 윤리적 내용을 획득하려면 언제나 ‘소수자 되기’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수자 되기’는 모든 되기의 보편적 지평이며, 정치적 실천의 윤리적 토대다. 왜냐하면, 소수자 되기를 통해, 자기 내부의 ‘다수자’를 극복하고 기존의 지배질서를 바꿔 새로운 배치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소수자 되기’는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고, 고정적이고 패쇄적인 정형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와 욕망을 끊임없이 생성하는 유목민적인 정체성이다. <중이의 집>에서 우리는 동성애자/이성애자, 여성/남성, 자국민/이민자 간의 차이가 주는 배타성과 억압성을 어떻게 전복시키고 탈 영토화 하는 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불법이민자에 대한 차별

‘노벨라 네그라(Novela negra)’라는 범죄 탐정소설에서는 불법이민자들의 고달픈 삶과 이민국 스페인 사회의 부정과 도덕적 타락을 비판하고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고발하고 있다. 이러한 이민자 혐오주의의 극치를 보여준 장면은 <중이의 집> 시리즈 4의 5화에 등장하는 비밀문서이다. 정부군의 집중포화로 위협에 처하자 덴버는 외교 비밀문서가 든 가방을 들고 나와서 공격을 중단시킨다. 이 외교문서에는 유럽이 리비아에서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불법이민자들을 사막에 버린 대가로 모로코에 돈을 주고 지중해를 외면하기로 한 비밀협정 문서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폭로되는 날에는 관련자들이 모두 범죄자로 몰리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대령은 은행에 대한 공격을 중단시킨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유럽/비유럽 간의 차별과 불법이민자의 극한 상황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의 요새화로 남미와 북아프리카, 동유럽의 이민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가면서 불법이민자들은 마피아를 비롯한 유럽의 범죄 집단에 매수당하고 연루되어 사회악의 한 축으로 위협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등으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면서 이민자들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외국인 혐오주의의 망상까지 불러들이게 되었다. 왜곡된 집단무의식과 신민족주의는 이민국과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무지와 오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차치하면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현실을 고발함으로써 탈제국주의 시각에서 정체성 문제를 바라본 호미 바바(Homi Bhabha)의 ‘혼종’의 정체성에 주목하게 된다.

그는 식민주의의 차별화된 정체성 개념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진통이라 할 수 있는 열린 텍스트로서 문화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Bhabha 1994, 67). 그리고 문화를 움직이는 것은 문화를 갈등의 소재로서가 아니라 문화의 차별적 생성과 그 효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존재의 예측불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들뢰즈는 중심부를 전복시켜 주변부를 미시 정치화하는 잡종적이고 리좀적인 내재적 시공간을 탈 영토화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허간(Huggan)은 상대주의적 글쓰기를 통해서 주류 언어를 소수자적으로 사용하여 주류 문화를 소원화 시킬 것을 강조하였다(Huggan 2000, 37-60).

<종이의 집>의 조폐국이나 중앙은행 내부에서 강도들은 인질들에게 가면과 의상을 나누어주어, 인질과 강도를 구분하지 못하게 한다. 이처럼 고착화된 정체성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주체를 해체시키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경계를 없애는 것을 탈영토화라고 한다면, 탈영토화의 공간에서 등장인물들은 일체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수평적이고 창조적인 상호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상생하게 된다. 소수자들이 수평적이고 창조적인 상생을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가는 모스크바의 죽음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모스크바와 헬싱키는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의료진의 치료를 거부한다. 그들은 경찰 권력에 끝까지 저항하는데 이는 그들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자유와 미래를 보장

받고 싶어서였다. 소수자들은 자신의 고유성을 빼앗아 획일화된 원칙과 기준에 맞추려는 권력에 맞서서 끊임없이 저항하며 창조적인 생성을 시도한다. 지금까지 소수자 운동에 속하는 이민노동자 문제, 동성애 운동, 여성 운동, 소수 민족 및 인종의 독립 운동 등 이러한 운동의 핵심은 중심성의 탈환이나 주변성의 주체회복이 아니라,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허물고 그것을 가로지르는 탈주를 하는 것이다. 라캉은 억압된 것은 반드시 귀환한다고 했는데 이를 들뢰즈의 ‘되기’이론과 연관지어 보면 권력의 내부를 구성하는 경직된 선분성에 맞서 권력의 외부를 구성하는 탈주선을 따라 창조적인 생성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2.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이 작품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헬싱키와 팔레르모, 팔레르모와 베를린의 관계가 그러한데 이들은 강도들 사이에서도 비난과 무시의 대상이 되면서 갈등을 유발시킨다. 앞에서 언급한 ‘소수자-되기 이론에서 남성들은 제외된다. 즉, 들뢰즈는 남성을 주체로 하고 여성을 타자로 삼아온 전통적인 사유체계 속에서 남성(마초)은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자아상을 형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들뢰즈는 소수자-되기를 통해 주변부 인물을 중심으로 남성의 권력에 대항하고 서구의 합리적 이성을 거부하여 정체성의 혼돈과 변화로 자아와 타아의 구별을 상쇄시킨다고 하였다(Bogue 1989, 149). 중앙은행의 금 습격을 지휘했던 팔레르모는 동성애자로서 남성과 여성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정체성의 혼돈을 가져와 남성과 여성이라는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이분법을 거부한다. 동성애자에게 있어서 성이란 단지 생산성이 아닌 쾌락과 유희이자 욕망과 젠더를 둘러싼 정체성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생겨난 문화적 이슈로,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을 시도하는 소수성을 구축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수성의 구축이라는 것은 퀴어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데 원래 퀴어 이론은 프랑코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지우려 하는 작업으로 무정부적인 자유방임성과 함께 전환기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과거 서사의 해체라는 정치성을 띠고 있다. 퀴어 운동은 정체성을 고정적이고 불변적인 어떤 체계로 절대화 하는 것을 부정하고 ‘동

성애'나 '게이다움'이라는 개념이 다양한 성적 욕망과 주체성의 형태를 전체화하는 것을 거부한다. 동성애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일종의 '노마드'로 특정한 성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다양한 계열로 변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것이며 그들의 삶은 고정 불변되지 않은 유목적 주체로서의 생성이요 과정이다(서동진 1996, 129-130). 따라서 이들 동성애 운동은 각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수평적인 연대와 횡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이 배제해 온 사회 질서에 대한 저항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조를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호모포비아' 즉, 동성애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어 동성애자들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성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배와 억압으로 그들과의 경계선을 치려든다. 칼 구스타브 융의 이론에 의하면 남녀의 이분법적 논리가 초래하는 편협성을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은 각기 서로 반대되는 상대의 성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심리적으로 남성에게 있는 여성적인 요소가 아니마(anima), 여성에게 있는 남성적인 요소가 아니무스(animus)로, 개인의 정신적인 발달에 있어 두 가지 모두 필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만약 남성이 자신의 아니마적인 요소를 억누를 때, 마초적 성향이 강하거나 여성 혐오적인 불안정한 개인성을 띠게 되고 여성도 마찬가지로 아니무스적 성향을 억압할 때, 남성 혐오적이 되거나 지나치게 순종적인 여인이 된다. 따라서 개인은 각각 자신의 반대성 성향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일 때, 자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칼 융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이 가부장적 체제 속에서 억압되어 왔던 자신의 반대성 성향을 받아들여 남성 중심적인 이분법적 사유체계를 포기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자아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였다(칼 융 1983, 182-202).

이를 들뢰즈의 궤도 이탈을 꿈꾸는 소수자-되기의 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탈주는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는 것도 아니고 연속적이지도 않은 자기 파괴적인 기계이자 무에서 작용하는 기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Kafka 1995, 253-254). 팔레르모가 습격사건의 지휘봉을 들었을 때 다른 동료들로부터 미

움을 받고 급기야 도쿄에게 지휘권을 넘겨주게 된 데에는 자기우월감이 크다는 성격적 결함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그래서 남성 정체성의 획득은 여성 정체성보다 더 많은 차별화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만큼 무엇인가를 욕구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를 회피하는 것으로 더 자주 정의된다. 남성이 된다는 것은 여성이 되는 것을 회피하는 일인 동시에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는 일을 의미한다. 특히,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은 보수적이고 경직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로써 여성적인 특성들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크게 적개심을 품게 된다. 베를린이 팔레르모의 동성애를 받아들여주지 않은 것이나 트랜스젠더인 마닐라에 대한 덴버의 거부 등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호모포비아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들뢰즈에 의하면, 소수자-되기의 과정을 거쳐야만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간의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소수자-되기를 통해 차별적인 관계를 넘어서야 하고 다양성과 특이성을 존중하고 공통성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 해결책으로 사랑과 존엄의 소통을 들었다. 그가 제시한 사랑의 조건에는, 첫째, 자신을 포기하는 것, 즉 자신의 정체성을 해체시키는 탈주의 단계이고 둘째, 합성 혹은 구성하는 단계다. 사랑은 차별을 통한 정체성의 획득이 아니라 고착화된 자아에서 벗어난 요소들의 새로운 합성으로 이를 위해 서로 간의 긴밀한 소통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하트2004, 408). <종이의 집> 시리즈 5의 군인과의 대결 상황에서 동성애자와 동료들 사이에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져서 팔레르모는 다시 지휘관으로 자신의 몫을 완수해내고 덴



〈그림 3〉 베를린과 팔레르모



〈그림 4〉 헬싱키와 팔레르모

버도 마닐라(홀리오)의 여성성을 인정해주고 화해하게 된다. 팔레르모의 자기 우월성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동성애 파트너였던 헬싱키를 경멸하고 무시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나이로비는 팔레르모가 베를린에 대한 자신의 동성애가 거부당해서 생긴 트라우마이자 그로 인한 애정결핍과 열등감으로 인해 타인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에 장애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한다.

팔레르모는 특수부대의 진입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순간, 그에게 반항하며 지휘권을 빼앗아간 도쿄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인정을 받게 되면서 동료들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회복하고 “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너의 생명을 구해주겠다”며 헬싱키를 동성애 파트너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홀리오의 정체성변화의 변화에 놀라 그를 멀리했던 덴버는 홀리오가 어릴 적부터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여성성으로 인해 덴버에게 사랑을 느꼈다는 진심어린 고백에 공감하며 화해하게 된다. 이들 동성애자들이 소수자로서 갖는 탈주화의 기능을 들뢰즈의 시각에서 보면, 정체성의 정치학이 닫아버린 저항과 전복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젠더, 인종 그리고 성적인 정의들 사이의 정체성화와 욕망의 위기들을 가로지르는 탈주를 기반으로 실체들을 변화시키고 와해시키는 변용의 과정을 통해 유동적인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들뢰즈 2001, 22). 이런 관점에서 <중이의 집>에 등장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감을 극복하는 길은 성소수자들의 정체성을 자신과 다른 차별적인 어떤 것으로 보지 말고 ‘유동적인 에너지의 확보’를 통한 공감대의 형성과 인간 존엄에 기초한 소통으로 공통성을 찾아가는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3. 파시스트와 전쟁에 대한 저항

강도들은 중앙은행 총재의 경호원 간디아를 향해서 ‘파시스트’라고 외친다. 그리고 시즌5 마지막 장면에서 정보부장 타마요는 중앙은행으로의 군인 진입을 명령하고 팔레르모는 “이것은 강도질도 체제에 대한 저항도 아니다, 지금부터는 전쟁이야”라고 외친다. 전쟁이나 파시즘이 갖는 공통된 특성으로 “자기

파괴성”, “소멸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남성의 권력이나 파시즘 등이 신체의 욕망을 자멸적인 죽음의 충동으로 동일시하기 때문이다(들뢰즈/가타리 1975, 35). 다시 말하면, 파시스트들은 민족과 혈통적 주체의 본질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죽음이라는 비극적 숭고함을 통해 민족과 혈통이 유지될 것이라고 충동하는 것을 뜻한다.

히틀러나 뭇솔리니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기 민족이나 혈통과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의 단일성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행사해왔고 종국적으로는 타인 뿐 아니라, 자기 소멸의 길을 자초하게 되었다. 들뢰즈는 파시즘과 전쟁의 특성을 반생산성(antiproduction)과 죽음, 그리고 고독으로 정의하고 창조적이고 생성적인 에너지가 상실된 상태로 보았다(Deleuze 1990, 33). 들뢰즈가 정의하는 ‘전쟁기계’는 국가장치에 반역하여 국가장치를 넘어서기 위해 발생하는 부정부적이고 카오스적인 성향을 띠다고 했는데 이러한 정의는 드라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교수가 계획한 두 차례에 걸친 강도 습격사건은 유사전시 상황을 연출하면서 군대와 경찰, 정보부를 상대로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한다.

그러나, 팔레르모가 외쳤던 것처럼 강도질은 (국가/정부) 체제에 대한 저항은 아니었다. 전쟁의 끝은 승자와 패자로 갈리면서 패자는 승자로부터 무자비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자기 파멸에 이르기 때문이다. 전쟁은 패쇄된 사회구조와 전통이 낳은 이념의 갈림길에서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택으로 인해 자신의 운명까지 결정 지워져 버리는 혹독함을 초래한다. 그러나 <중이의 집>에서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국가권력에 맞섰던 강도들은 패배로 인한 자기파멸이나 승리로 인한 양값음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공간으로 해방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피엔딩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이었나?

은행과 조폐국 습격을 지휘하는 교수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비폭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교수가 경찰에게 쫓기면서 강도들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팔레르모가 지휘권을 잡으면서 비폭력 원칙은 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나이로비와 모스크바, 도쿄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혼란과 폭력에 휩싸인다. 동료의 죽음이 강도들과 군인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으로 다가오면서

인간성을 상실한 채, 극도로 잔인해지게 된다. 수직적이고 폐쇄된 권력구조인 전쟁 속에 갇히게 된 강도들은 생명경시와 죽음이라는 파괴적인 욕망을 갖게 된다(Deleuze & Guattari 1980, 408).

처음에 강도들은 교수가 짜놓은 창조적인 상상력 속에서 이제까지 실패자로 살아간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성적인 미래를 바라보며 활력을 얻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교수가 경찰에게 신분이 탄로 나고 쫓기는 위기에 처하자,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폭력과 광기에 휩싸이게 된다. 스페인 내전 세대인 후안 고이띠솔로는 『낙원길에서의 결투』라는 전후소설에서 어른들의 전쟁을 모방한 전쟁고아들의 ‘공포의 제국’을 그려낸다. 소년들은 ‘낙원길’에서 어느 누구의 간섭도 없이 어른처럼 전쟁놀이를 하고 방화를 저지르고 동료를 총살시키면서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수직적이고 폐쇄된 권력구조 속에 스스로를 가둔다.

들뢰즈의 ‘소수자-되기’이론 특히, ‘아이-되기’ 이론에 근거하여 소년들의 행동을 분석해볼 때, 친구 아벨의 죽음을 둘러싼 소년들의 행위는 ‘아이-되기’의 정반대 현상으로 소외와 고독을 부추기며 자유로운 자아상 형성을 휘방하는 남성(마초)을 주체로 여성을 타자 삼는 전통적 사유체제의 산물이었다. 특수부대의 투입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강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어떠한 접촉도 허용하지 않는’ 감옥에서의 깊은 고독과 소외감 뿐 이었다. 들뢰즈는 ‘고독’이란 창조적이고 생성적인 에너지의 부재에서 비롯된 감정으로 전쟁의 특성으로 보았다. 스페인은 내전과 독재로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사는 중단되고 ‘피의 순수성’ 신화를 소환해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석화된 신화에 매몰되어 종교적, 혈통적 순수성을 강조하며 결정주의적 운명론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고착화된 자기 정체성은 프랑코의 편협한 분권주의와 프랑코리즘의 획일적이고 폐쇄적이며 자민족 중심적인 사고와도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사상적 이데올로기 대립이 극심했던 내전이 종결되고, 파시즘을 지지했던 프랑코 사후부터는 이념적 차이보다는 소수자와의 수평적이고 역동적인 접촉과 생성을 강조하고 공존과 협력을 지향하고자 제3세계와의 문화적 접촉을

피하는 다원주의를 추구하게 된다. 욕망의 노마드적 흐름과 쾌락을 억압하는 파시즘의 출현 원인이 자민족 중심주의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때, 파시즘의 종식은 중세시대 유대인-무슬림-기독교도의 무데하리스모 정신을 이어받아 상호 연계, 침투되며 탈 중심적이고 해방적인 흐름 속에서 다원화된 혼종적 국가 정체성을 이루어내게 된다.



〈그림 5〉 조페국에서 나오는 나이로비의 관



〈그림 6〉 조페국 앞에서 나이로비의 장례식을 지켜보면 안타까워하는 시민들

드라마 최종회에서 은행은 정부군에 점령당하고 강도들은 총살당할 일촉즉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교수가 타마요와 평등한 입장에서 협상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그가 공들여왔던 비폭력의 원칙 때문이었다. 교수가 비폭력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던 이유는 인질극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사기 위함이었다. 드라마에서 매스컴은 “계속적으로 주체가 해체되고 생성하는 중간지대”(Deleuze and Parnet 1980, 318)로 교수는 매스컴을 이용하여 국민들과 대화하고 참여하는 의사소통의 공 영역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교수는 국민들과 같이 울고 웃으면서 공감을 자아낸다. 이러한 공감의 장소는 들뢰즈의 ‘되기’, ‘생성’의 공간이고 학교 내의 권력과 가족 내의 권력, 부부 내의 남성 권력 그리고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초자아의 억압적 권력을 탈영토화하여 파시즘 권력에 대항하는 무한한 생성과 창조의 잠재력과 변용의 힘을 실감하는 장소이다.

(따마요 대령) “저게 뭐야”

(도쿄의 나레이션) 나이로비를 추모하며 경의를 표하는 미사일이었다.

(앙헬 경관) “총재의 경호원들입니다.”
 (알리시아) “장례식이네.”
 (나이로비의 관에 쓴 글) <나이로비 1986-2019> <개쩌는 보스>
 (도쿄의 나레이션) 그 순간 텐트 안도 모든 작업이 멈췄다.
 (알리시아) “무슨 일이죠?”
 (따마요 대령) “다시 (군인들) 들여보내.”
 (알리시아) “나오라고 해요. (마지막) 인사는 해야죠.”
 (도쿄의 나레이션) 나이로비의 죽음으로 무거운 침묵이 주변을 감쌌다. 달리 이야기(조폐국 점령사건)가 해피엔딩일거라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걸 보고 깨달았다. 이건 그저 전쟁일 뿐이란 걸.(LA CASA DE PAPEL 4 - Funeral De Nairobi Y Homenaje)

교수는 정부의 비인도적인 심문과 거짓 진술 및 책임 떠넘기기와 경찰의 강경대응 등 정부의 비리를 폭로하고, 특수군 간디아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된 나이로비의 장례식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한다. 죽음과 삶을 오가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적인 사고에 매몰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고자 하는 강도들의 인도주의적 행동은 가난마저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온갖 포비즘(혐오주의)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III. 나가면서

프랑스의 대선출마를 선언한 극우성향의 언론인 에릭 제무르는 지난 5년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이른바 다문화·다양성 정책과 친 EU 정책으로 인해 이슬람과 불법 난민이 더 극성을 부리게 되었고,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이 이 땅의 주인인데도 이민자와 외국인들의 뻘뻘함에 놀려 오히려 자신들이 이방인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문명이 파괴되고, 프랑스라는 나라는 빈껍데기가 됐다는 것이다. 제무르는 또 “오늘 여러분의 지지에 힘입어, 우리는 이제 빼앗긴 프랑스를 다시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자신의 대선 운동 명칭이자 당(黨)의 이름인 ‘재

수복(Reconquête)’을 공개했다. 그는 “프랑스의 경제, 프랑스의 안보, 프랑스의 주권, 프랑스의 정체성, 그리고 무엇보다 프랑스라는 나라를 다시 되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여러분 모두가 이 운동이 동참해 달라”고 했다.¹⁾ 제무르의 외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앞 다투어 불법체류자의 금지조치를 취했다. 불법 체류자에 의해서 자국민에게 취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라는 경제적, 현실적 원인도 있지만, 프랑스 고유의 문화와 문명이 불법이민자들에 의해서 파괴되어 정체성 혼란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열거했던 일련의 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조치들과 내부의 긴장과 갈등 상황을 살펴볼 때, 이제는 더 이상 소수자 혹은 소수계층의 인권을 한 국가의 정책으로 규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들이 집단 이기주의나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져서 자아/타아를 구분 짓는 경직된 사고로서는 글로벌화의 흐름을 좇아갈 수 없다. 파시즘이나 자민족중심주의 사상은 국민이나 국가를 나누는 민족과 혈통, 인종의 영원성을 강조하여 다양한 변용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 민족과 혈통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단 일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히틀러의 파멸에서 보았듯이 자기 소멸과 파괴의 길을 자초하게 된다. 들뢰즈는 이러한 자기 파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패쇄적인 사회구조와 전통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만끽하고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이의 집>에서 교수는 동료들에게 사적인 대화나 관계형성을 금하고, 인질들을 절대 해치지 않는다는 비폭력의 원칙을 강조했지만, 사적인 관계나 소통의 부재로 생겨나는 갈등과 충돌은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렸다. 그러나 구성원 간의 내밀한 사적인 관계를 통해 쌓게 된 사랑과 신뢰는 구성원 간의 공감을

1) “프랑스 극우 대선후보 “EU와 불법 이민자에 뺏긴 프랑스를 되찾겠다” 조선일보 2021년 12월 6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europe/2021/12/06/TFU6LIX2DNBGZPAYTQOWLUXC6A/>

자아내게 되었고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감옥은 수직적이고 패쇄된 권력구조에 지나지 않았고 창조적인 미래를 강탈당하는 소외된 공간이었다. 베를린과 도쿄, 모스크바와 나이로비가 항복하는 것을 죽음보다 싫어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조폐국과 은행의 습격을 진두지휘했던 교수는 “(죽음 외에는) 아무 것도 잃을 것이 없는” 범죄자들을 모집하여, 획일적이고 배타적이고 지배적인 폭력의 공간에서 해방시켜 상호적이고 변별적이며 다중적인 탈영토화의 공간으로 데려간다. 이런 의미에서 인질극이 벌어진 조폐국과 중앙은행은 공포의 공간만은 아니었다. 어느 누구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창조적이고 생성적인 에너지로 미래를 보장해주는 곳이자, 구성원들 간의 공감과 사랑으로 과거의 조롱과 멸시를 극복하고 인간본연의 가치를 인정받는 치유의 공간이었다.

고전 작품보다 현실감과 시대정신을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영하는 드라마 분석을 통해서 ‘가난마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사회²⁾를 그려내고 있는 글로벌 흥행 드라마를 많이 찾아낼 수 있었다. 오징어게임이 글로벌 시장의 창문을 열어젖히듯 역대급 인기몰이를 하는 드라마들이 그 뒤를 잇고 있고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들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극한 상황에 몰린 자들로 <종이의 집>의 캐릭터와 유사하다. 사회의 불평등을 풍자한 이들 드라마에서 우리사회, 나아가 지구촌에 만연한 불공정과 빈부격차가 이제 한 나라의 특수성이 아닌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넷플릭스라는 시간과 장소의 경계가 사라진 초연결 세상은 더욱 풍성한 상상력을 발휘하며 현실의 불편한 자화상을 고발하는 이들 드라마를 통해서 집단주의와 획일화로 인해 소외되고 억압당하는 나약한 소시민을 옹호하고 있다. <종이의 집>의 정보국과 정부당국의 책임 떠맡기기와 거짓 진술을 통해 사회와 국가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고발하고, 강도들에게 공감하고 지지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통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난 도시 하층민들의 일

2) “기생충 vs 기생수” 「박정호의 시사각각」, 중앙일보, 2022년 2월 14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7946#home>

상에 관심을 갖게 하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함을 강하게 설득하고 있다. 피카레스크 소설과 노벨라 네그라를 통해서 그 계보를 잇고 있는 반 영웅적 캐릭터에 대한 연구가 스페인 고전 문학작품에 대한 분석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에서 제기한 새로운 시대정신의 마중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승숙(2009), 『소수의 시학-들뢰즈와 카타리의 리즘적 사유양식』, 서울: 한국 학술정보, p. 23.
- 마이클 하트(2004), 『들뢰즈 사상의 진화』, 김상운 외 역, 갈무리, p. 408.
- 서동진(1996), 『누가 성 정치학을 두려워하라』, 문예마당, pp. 129-130.
- 정정호(2003), 『들뢰즈 철학과 영미문학 읽기』, 서울: 동인.
-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1994), 『앙피 오디푸스』, 최명관 역, 서울: 민음사.
- _____ (2001), 『카프카: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이진경 역, 서울: 동문선, p. 18.
- 칼 융(1983),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이부영 역, 집문당, pp. 182-202.
- Bhabha, Homi(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p. 67.
- Bogue, Ronald(1989), *Deleuze and Guattari*, London: Routledge, p. 149.
- Buschmann, Albrecht(2005), “Primer Encuentro Europeo de Novela Negra Homenaje a Manuel Vázquez Montalbán 5 apuntes”, www.anyllibre2005.bcn.es(검색일: 2009년 2월 1일)
- Craig-Odders, Renée W.(1999), *The Detective Novel in Post-Franco Spain: Democracy, Disillusionment, & Beyond*, New Orleans: UP of the South, p. 63.
- Del Sarto, Ana(2008), “Testimonio’s Roots,” *Testimonio: A Reclamation of Historical Space*, <http://digitalunion.osu.edu/r2/summer06/herbert/testimonio-subaltern/testimonioroots.html> (Jan. 8, 2008).
- Deleuze, Gilles & Claire Parnet(1987), *Dialogues. Trans. Hugh Tomblinson and Barbara Habberjam*, New York: Columbia UP.
- Fernández Lino, Shanna Catarina(2008), *The Problem of Immigration and Contemporary Spanish Detective Fiction*,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Philosophy. University of Toronto.
- Garrido Ardila, Juan Antonio(2008), *El género picaresco en la crítica literaria*, Madrid:

Biblioteca Nueva.

- Gier, Daniel(2000), “Caras nuevas: Relexiones sobre la representación de norteafricanos y otros colectivos marginados en la novela policíaca española después de 1975,” *Alharaca* 2000-2001. <http://www.uam.es/departamentos/filoyletras/earabes/alharaca/invierno2000/norteafricano.html> (검색일: 2008년 12월 20일)
- Giménez Romero, Carlos(2003), *¿Qué es la inmigración?* Barcelona: RBA Libros, p. 97.
- González, Carlos(2005), “Novela negra, una herramienta social para la construcción de la identidad europea,” *Any del Libre i la Lectura* 2005, Institut de Cultura de Barcelona.
- Kafka, Franz(1995), *The Complete Stories*, Arthur Samuelson ed. New York: Random House, pp. 253-254.
- Martínez, Alejandro(2019), *Transgresión y censura en la novela picaresca española* (Ensayo), Editorial Verbum.
- Rico Francisco(1982), *Novela picaresca y punto de vista*, Editorial Seix Barral.
- Symons, Julian(1982), *Historia del relato policial*, Barcelona: Editorial Bruguera.

임주인

한국외국어대학교
 jlimoh@hotmail.com

논문투고일: 2023년 3월 13일
 심사완료일: 2023년 4월 19일
 게재확정일: 2023년 4월 24일

The Decentralized Ideas in <The Money Heist>

Juin L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im, Juin(2023), “Decentralized Ideas in <The Money Heist>”,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4(1), 37-47.

Abstract In <The Money Heist>, a criticism of Spain’s monetary policy and stimulus package, which was brought to the brink of bankruptcy in 2008 due to the bursting of the real estate bubble and a large number of bad loans, continues throughout the series. The robbers’ designation of the central bank and the mint as the site of the raid shows the anger of the Spanish people against the government and financial officials who caused the Spanish financial crisis. I would like to interpret some aspects of internal resistance, such as conflicts and clashes between characters, as Deleuze’s concept of deterritorialization. Deleuze sees minorities on the periphery beyond the control of state apparatus as nomadic subjects, and argues for a break free from the violence of the monolithic ideologies of formal culture, centering on the dissolution of individual subjects, the disappearance of the essential, and the rise of the marginal other. In *The House of Paper*, which features a minority of anti-heroic characters as the central characters, from the Picaresque novels of the 16-17th centuries to the detective novel *novela negra* today, we see that Dali’s surrealist perspective, which was critical of the existing art world and the social system of the time, is in line with the concept of deterritorialization, in order to express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ought that is free from all aesthetic and moral preconceptions without being dominated by logic.

Key words Casa de pape, Gilles Deleuze, Félix Guattari, Homi Bhabha, nomadism, *novela negra*, *novela picaresca*